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과 삼봉리 가야고분군 등 장수가야문화유적지 일원에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관광체험 활발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청소년 등 60여명 방문... 군 대표 프로그램 발돋움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과 삼봉리 가야고분군 등 장수가야문화유적지 일원에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참여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2019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탐험활동과 연계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 침령산성',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등 장수군 대표 가야문화 유적지를 방문했다. 특히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와 재단법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적 설명과 안내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장영수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사업 중 하나인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한 역사·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관광체험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수군은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장수가야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험·관광 등을 진행하는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군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캠페인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욱)은 10일 장계면민의 날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으세요 국가암검진, 누리세요 평생건강'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는 장수군보건의료원과 전북국가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출장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가암검진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정기적인 암검진의 중요성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인자(보험료 직장가입자9만4천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3천원 이하)로 암종별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면 무료검진이 가능하다.

암종별 대상자 기준은 위암과 위방암은 만40세이상(2년마다), 대장암은 만50세이상(1년마다), 장궁경부암은 만20세이상(2년마다), 간암의 경우 만40세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7월이후 폐암 만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2년마다)도 검진

이 추가 될 계획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암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며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가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만큼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국가암검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약팀(350-276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5분 발언

"관광산업이 무주의 미래"

윤정훈 의원, 대책 수립 촉구

무주군의회 윤정훈 행정복지위원장(무주군의회 1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무주군은 1981년 구천동 덕유리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며 여름관광 시대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무주조트 개장,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반딧불축제 개최를 통해 무주의 존재감을 선보이며 사계절 대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무주구천동 관광 특구가 1997년도에 지정되어 22년 동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주관광산업은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고 무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첫째 관광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둘째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인허가와 규제 문제 해소 셋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을 통한 무주남대천 활성화를 통하여 무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대천이 무주관광의 화룡점정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관광산업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광산업이 다시금 무주군의 희망이 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5분 발언이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 아리

진안군 상반기 자동차세 10억원 부과

진안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1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마감일은 6월 30일이나 일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필요"

이해양 의원,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무주군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 국립태권도원 개원과 함께 산간 농촌지역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은 3만 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는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는 서울행 첫차가 9시 45분, 무주행 막차가 오후 2시 35분으로 서울 1일 생활권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무주 주민들은 시간과 경비를 이점으로 낭비하며 대전을 경유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스 배차시간 조정 또는 증차를 통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긍정적으로 협의하며, 전북 고속과 금남고속 대표 및 임원진 면담 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고무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결국 국토교통부의 조정심의건으로 제출되었다"며,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무주군민의 호소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고원시장 노후관로 교체

진안군은 진안고원시장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진안 고원시장은 일평균 유출량이 약 1200톤에 달해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급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이달부터 11월까지 배수관로 577m, 급수관로 142m를 교체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족콘서트 "여름 밤 별 헤는 밤"

13일 무주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무주군은 오는 13일 저녁 7시 무주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에서 2019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가족콘서트 '여름 밤 별 헤는 밤'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75분 간 이연아이앙상블의 '댄스음악바다 신나는 클래식'을 비롯해 이안 & 은근의 '포크선율, 그리고 통통 튀는 타악기와 만나는 싱그러운 음악', 오쿠다 마사시가 진행하는 '비눗방울 파파민스', 철부지 트리 오가 펼치는 '엄마, 아빠,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는 심어송터임'을 즐길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안성면 주민은 물론, 군민들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기면 좋을 공연"이라며 "예술단체가 함께 하는 예술 공연을 통해 밝고 즐거운 여름밤의 운치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800여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농산어촌을 비롯한 도서산간,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관객들과 문화,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나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